

“청소년 문제 참선·절하기로 풀자”

주부 신행담

잘못된 인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유증은 예상보다 컸다. 당장 생활이 문제였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는 조건으로 위자료료를 한 푼도 받지 않은데다가 친정집으로 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 월세를 얻어 아이와 함께 단둘이 나와 지냈다. 배운 기술이 없는 내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직업이란 식당 보조일을 하는 것이었다.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는 등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이였기에 하루 10시간 이상씩 되는 중노동도 고된 줄을 몰랐다. 2년이 지나자 어느덧 자리가 잡혔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어려움에

서 낳은 아이였다. 그에게 아이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된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와 그의 아이가 한집에서 서로 융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려웠다. 아직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라 말 한마디에 서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로 몇달동안을 망설였다. 한 번 실패한 터라 더욱더 신중해 지자는 게 내 생각이었다.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들만 좋고 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터라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워낙 그의 청혼이 적극적이었던 그의 사람 됨됨이가 착해 그에게 남은 인



그림 · 이준석

재혼 후 아이 싸움 또 고비

처해 있는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다. 또 이따금씩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혼자된 남자들을 소개해 팔리 가정용 갖도록 추천해 주기도 했다. 6개월 동안 5명의 남자를 만나봤는데 한 번 실패한 터라 또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택시 기사인 40대 중반의 남자를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첫 인상이 편안해 우선 호감이 갔다. 그도 역시 부인이 4년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 혼자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일곱 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다. 현재는 할머니 손에 서 키우다가 했다. 3개월 동안 서로의 아픈 상처를 솔직히 얘기하는 등 진지하게 교제했다. 그때마다 그는 진심으로 나의 아픈 상처를 위로해 주었다. 나 역시 그런 그가 믿음직스러워 그의 청혼에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단지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곤 전혀 소생에

생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두 번째 결혼인 지라 결혼식장에서 정식으로 하지 않고 가까운 친지들만 모여 약식으로 지냈다. 역시 남편은 내가 본 첫 인상대로 착하고 성실했다. 가정을 돌볼 줄 알고 가족을 진정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첫 결혼의 실패 후에 불안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했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결혼 전에 우려했던 것처럼 아이들끼리 싸울 때면 서로 자기 자식의 편을 들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종종 생겼다. 그럴 때마다 속이 많이 상했다. 한 고비를 넘기니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구나 하는 생각에 무엇인가 의지 하고픈 마음이 들었다. 바로 그때 생 각난 것이 불경이었다. 첫 번째 결혼 때 시어머니가 답답할 때 읽으라고 선물해 준 것이었다.

이경순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교수불자연합회 청소년정책 학술대회

청소년 범죄와 비행, 성매매, 인터넷을 통한 탈선 등 청소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는 1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한국의 미래와 청소년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김익수 교수(한국체육대 체육학과)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총포화는 현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미래의 청소년 교육 방향은 효사상을 통한 가정 윤리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수양이 뒷받침된 인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또 청소년 문제를 불교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김남순 교수(조선대 특수교육학과)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불교의 계(戒) 정(定) 해(慧) 삼학과 참선을 통한 것”이라며 “계율을 통해 도덕적으로 위기를 극복 한 뒤 선정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지혜를 통해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불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영역이 바로 예절 교육인데 이것은 ‘절’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며 “부처님께 드리는 ‘절’은 공경의 의미 외에 자신을 낮추면서 탐욕과 성냄을 누그러뜨리는 일이며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정리하는 교육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음란물이 범람하는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대책 마련과 함께 청

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올바른 인터넷 교육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임준태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청소년 비행은 음주, 흡연, 환각제 흡입, 가솔린 등 각종 풍기문란에서 폭력, 강도, 살인 등 형

계정해 ‘삼학’·효사상 등 수행 통한 인성교육 절실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범위가 점점 넓혀지고 있다”며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관심과 대화, 접촉, 애정을 통한 가족유대 형성이 청소년들을 올바른 주역으로 성장케 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에서 윤옥경 교수

(경기대 교도 행정학과)는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전화를 이용한 원조교제의 차원을 넘어 수법과 대가 지불 방법이 바뀌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전화로 성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사이버머니나 약세서를 선물하는 형태로 바뀐 신종 원조교제도 등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홍자은 디지털 열린상담실장은 “오랫동안 청소년 포교를 위해 일하다

끊임없는 대화와 관심 비행·탈선막는 지름길

보니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끊임없는 대화와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리 좋은 해결방안이 세미나에서 제시되더라도 이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중품의 활용

1. 손은 중품상생의 자세로 단전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앉는다. 이때 발가락이 바닥을 누른 자세를 취하는데, 경락을 당겨 주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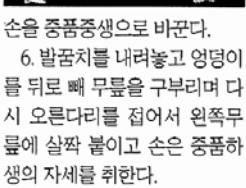


2. 단전에 집중하며 원을 그리듯 손을 천천히 돌려 어깨 양 옆으로 편다. 다시 손목을 위를 향해 90도 꺾었다가, 두 팔을 쭉 펴서 몸의 앞쪽으로 당겨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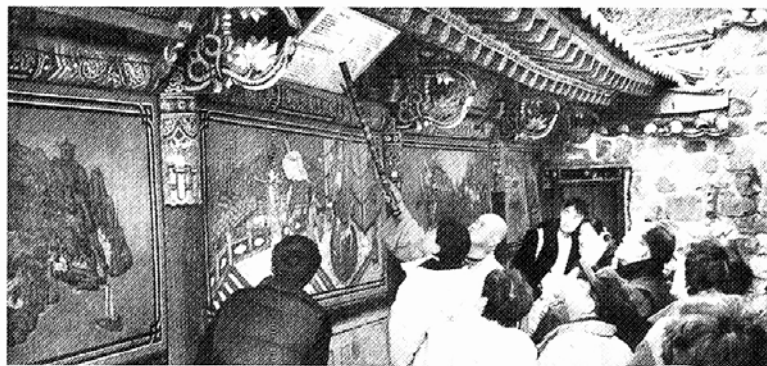


단전앞에 놓아둔 손 원 그리듯 천천히 돌려

3. 단전에 집중하며 무릎을 붙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서서히 일어나다. 이때 팔꿈치를 구부리며 중품상생의 자세를 취한다. 4. 다시 손을 중품상생으로 하면서 오른다리를 접어서 왼다리 무릎에 붙이고, 왼다리는 약간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 중심을 잡는다. 5. 오른다리를 제자리로 내리고 발꿈치를 들고 선 상태에서



손은 중품상생으로 바꾼다. 6. 발꿈치를 내려놓고 엉덩이를 뒤로 빼 무릎을 구부리며 다시 오른다리를 접어서 왼쪽무릎에 살짝 붙이고 손은 중품상생의 자세를 취한다. 7. 다리를 내려놓고 두 무릎을 구부리면서 손은 중품상생으로 하여 서서히 단전 앞으로 가지고 온다.



◊ 낙화암 고란사에서 무공스님이 절 이름이 비롯된 고란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신비한 미륵불... 청아한 고란초...

본지 11월 불교문화체험기행 다녀와

“개태사는 고려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한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찰입니다. 특히 개태사에 모셔진 세 개의 불상은 손과 눈, 귀가 얼굴에 비해 크게 표현돼 중후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25일 오후 2시 개태사 주지 법심 스님은 개태사의 역사와 성보문화재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불교신문사 주최의 불교문화체험기행에 참가한 40여명의 참가자들은 법당 참배를 마친 뒤 스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왕건이 5백여명의 스님들의 공양을 짓게 하기 위해 하사했다는 설을 살펴봤다.

또 관측사에서 참가자들은 높이가 19m인 은진미륵불의 큰 규모와 석등의 화려한 조각기법에 놀라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적멸보궁과

같이 불상대신 은진미륵불을 벽면 유리창을 통해 모셔 놓은 관음전에서는 108배 기도를 하며 소원을 빌기도 했다.

돌아오는길에는 낙화암 기슭에 자리잡은 백제 고찰 고란사 종루앞에서 즉흥적으로 펼쳐진 총무 무공스님의 대공 연주는 참가자들의 육체적 피로감을 털어내기에 충분했다.

조규욱씨(42)는 “백제의 불상들에서는 정교하고 세련된 모습보다는 단아하고 서민적인 풍모가 많이 느껴졌다”며 “이번 유적 답가 코스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KBS 역사 드라마 ‘왕건’에서 등장하는 곳들이어서 기도 순례 이외에 역사 공부도 함께 됐다”고 즐거워했다.

김주일 기자

- 목초 수액 시트 -

발 건강법

자고나면 온몸이 상쾌해지는 새로운 발건강법!!

아침이상쾌해집니다

- 발바닥에 붙이고 하루 밤을 자고나서 수분(노폐물)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 발에 붙이면 온몸이 상쾌해지며 일본에서는 매일 1만명 이상이 애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쉽게 피로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운동선수
- 항상 몸 컨디션이 불편한 분
- 가정주부

이런분들은 더욱 좋습니다

- 산후조리, 시고 저린 손발
- 굽어진 근육, 어깨, 무릎
- 머리 등이 상쾌해 집니다.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 02]455-6944, 02]453-5851

유체이탈, 쿨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시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서 영성, 차크라, 유체이탈, 문달리니, 미진과 역의 차크라제법, 에너지이치,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용 기계 프로그램 내장 (기본시양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착용식, 미국 마이크로칩사)

- 오라진동수인 (미국 오라시스터사/중국OEM)
- 광안경 (황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 미국 마이크로칩사)
- 다이내믹 고주파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칩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생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생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램의 체질을 알아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면 하연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비회원구와 해당음) 소책자의 키도로그를 우송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영가 천도재(49재) 안내

불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사정상 망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대행하지 못한 분들의 동참을 원합니다.

사업, 상업, 취업 각기 소원상취와 질병, 재난등의 해소를 위한 조상, 일가, 친척들의 천도재입니다.

특히나 수자 영가(낙태아) 특별 천도재를 발원하니 산부인과 집도의사 그가 꼭 해당 어머니들의 동참 원합니다. 성별 합니다.

- 임 재: 2001년 양력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사사예불 ~
- 결 재: 2001년 12월 22일 화요일(동지날) 영가 1인당 5만원 [수자영가 1인당 3만원]
- 임 금: 국민은행 666-21-0285-909 예금주 지덕송

망릉시 주지금에

3일안에 깨쳐라!

마음과 육체 없음을 체험!

마음의 얽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내적평화 모든 정신적 심리적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경지를 얻습니다

時空 없음과 生死 없음을 체험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생의 업(유전자)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친가와 외가의 조상님들 영혼을 스스로 천도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며 자신의 소망을 확실히 실현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분리됨을 체험

참마음 수련 중 오랜 질환도 다스려져 새로운 건강과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 공개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예외없음)
- 정규수련: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화요일 오후 3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금요일 오후 3시
- 특별수련: 개인사정에 따라 시간조절
- 위치: 강원 홍천 공작산(서울 강남에서 1시간 20분)
- 문의: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충마음 수련원 心田堂 (구대광사)